영화를 활용한 장르별 글쓰기 교육 방안

김현주*

----- || 차 례 || -

- I. 머리말
- Ⅱ. <영화와 글쓰기> 교과목 내용 및 운영방식
- Ⅲ. 질문을 바탕으로 한 토의·토론 활동
- Ⅳ. 장르별 글쓰기의 실제
- V. 맺음말

【국문초록】

현재 정규 글쓰기 교과목으로는 학술적 글쓰기와 취업을 위한 실용적 글쓰기가 중심이되고 있다. 그러나 성숙된 감성능력이 없다면 학술적 담화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성적 글쓰기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삶에 대한 공감능력, 그리고 감수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논리적, 비평적인 글쓰기뿐만 아니라 감성을 다듬을 수 있는 글쓰기 연습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영화와 글쓰기> 교과목 운영 사례를 통해 영화감상 후 질문을 바탕으로 한 토의・토론 활동, 그리고 이를 편지, 일기, 시, 묘사 등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로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보았다.

영화 자체가 보여주는 풍부한 이야기와 사유들,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는 구성과 표현 방식 등은 학생들로 하여금 작품 이해와 분석능력을 넘어서 인간 삶에 대한 통찰의 눈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영화가 주는 이러한 다채로움은 글쓰기 교육방법을 구상하는 데뿐만 아니라 장르가 가진 수사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글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익히는 데도 기여한다 하겠다. 이는 언어적 상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칫 단편적인 글쓰 기 기술 습득으로 끝날 수 있는 실용적, 규범적 글쓰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언어사용의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총체성을 경험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자기 언어'를 가지고 삶을 능동적으로 기획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영화, 질문, 토의토론, 장르별 글쓰기, 편지, 일기, 시, 묘사, 감성, 공감

I. 머리말

본고는 영화를 활용한 장르별 글쓰기 교육의 효율적 방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글쓰기는 삶에 대한 여러 문제의식을 만나면서 자신을 형성해가는 데 필요한 활동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글쓰기의 중요성 때문에 대학에서도 절차적인 기초 글쓰기를 비롯해 고전읽기를 토론 및 쓰기로연계한 교육, 이공계열을 중심으로 한 전공글쓰기 등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교수학습법 개발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글쓰기센터, 교내 도서관과 같은 관련 부서와의 협조 하에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외연확장과 더불어 글쓰기 교육을심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글쓰기 교육은 교과과정으로서의 전문성을 획득하였으며 교과목 위상도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양필수 교과목에서 실시하는 기초적인 글쓰기 연습 이후, 이를 심화한 글쓰기 수업이 교과목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글쓰기 교육이 단시간에 그 효과 를 입증할 수 없는 만큼, 교육의 방향성과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문 역 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학생들이 '자기 언어'를 가진 글쓰기를 해 볼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대학 글쓰 기 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 중 하나는 학술적 글쓰기라 할 수 있다. "학문적 담화공동체인 대학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와는 다르게 배운 지식을 충실하게 소화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탐구하고 논리화"1)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보고서, 논문 쓰기 등의 학술적 글쓰기나 자기소개서로 대표되는 취업을 위한 실용적인 글쓰기로 끝날 경우, 자칫 학생들이 글쓰기를 이론이나 현실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

글쓰기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인간 삶에 대한 성찰과 타인과의관계 맺기를 통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이성적 판단력과 더불어 타인의 삶과 세상에 대한 공감능력, 그리고 감수성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감성을 중시하는 글쓰기 교육은 오늘날 지식중심사회에서 감성의 교육적 가치를 일깨우고, 지성을 인식하는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창조적·미학적 사유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2)이다. 따라서 대학교육에서 논리적, 비평적인 글쓰기뿐만 아니라 감성

¹⁾ 원진숙, 「대학생들의 학술적 글쓰기 능력 신장을 위한 작문 교육 방법」, 민족어문학회, 『어문논집』51, 2005, p.56. 학술적 글쓰기 및 대학 글쓰기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곽상순, 「학술적 글쓰기 교과 과정의 운영과 체계 연구」, 대학작문학회, 『대학작문』10호, 2015; 박정하, 「학술적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성균관대 〈학술적 글쓰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고와표현학회, 『사고와 표현』5집 2호, 2012; 서승희, 「학술적 글쓰기 주제 선정을 위한 단계별 지도 사례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7권 12호, 2017; 원만희, 「학술적 글쓰기에 있어서 '분석적/비판적' 글쓰기의 중요성과 실습 매뉴얼: 두 유형의 글쓰기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작문학회, 『작문연구』25, 2015; 이윤빈, 「대학생의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전략 교육 방안」, 한국작문학회, 『작문연구』 33집, 2017; 이윤빈・정희모, 「과제 표상 교육이 대학생의 학술적 글쓰기 수행에 미치는 효과」, 한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131, 2010; 정희모, 「대학 글쓰기의 교육 목표와 글쓰기 교재」, 대학작문학회, 『대학작문』 창간호, 2010; 정희모, 「핵심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교양교육 발전 방안 -대학 작문 교육과 학술적 글쓰기의 특성-」, 『작문연구』21집, 2014.

²⁾ 박현이, 「감성 개발을 위한 대학 글쓰기 교육의 한 방향 -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편지

을 다듬을 수 있는 수필, 시, 일기, 편지, 묘사 등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 연습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글쓰기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러 나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했듯이 남들이 다루지 않은 것을 찾아 내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은 일이다. 학생들도 글쓰기의 절차를 몰라서 쓰 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무엇을 쓸 것인가 또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 할 것인가 등과 관련한 어려움 때문에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것이 다. 따라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일이며, 이는 상상력 과 풍부한 감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영화는 학생들 의 상상력을 강화하는 데 적합한 도구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활자매체와 는 다른 영상세대로 성장해 온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영화는 학생들에게 친밀하고 접근성이 높으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예술장르이기 때문이다. 또한 글쓰기의 보조적 수단만이 아니라 영화 자체가 보여주는 풍부한 이야 기와 사유들.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는 구성과 표혂방식 등은 학생들로 하 여금 작품 이해와 분석능력을 넘어서 인간 삶에 대한 통찰의 눈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영화가 주는 이러한 다채로움은 글쓰기 교육방법을 구상 하는 데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장르별로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담아내 는 데도 기여한다 하겠다.

지금까지 영화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연구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나.3)

쓰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8권 3호, 2014, p.81.

³⁾ 김영옥, 「수사학 전통과 영화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 - 영화 <시>의 경우-」, 한국수 사학회, 『수사학』제15집, 2011; 나은미, 「영화를 활용한 성찰 글쓰기 탐색 - 대학생을 대상으로, <더 헌트>를 활용하여-」, 한국작문학회, 『작문연구』제31집, 2016; 이경희, 「영화 <그녀 Her>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모형」, 사고와 표현학회, 『사고와 표현』제9 집 2호, 2016; 한귀은. 「영화를 통한 타자성 지향의 글쓰기 교육」, 한국어교육학회,

고전 글쓰기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비하며 개별 영화에 한정되어 있어 교과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에는 힘든 면이 있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4이에 본고에서는 <영화와 글쓰기> 교과목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영화를 활용한 편지, 일기, 시, 묘사하기 등 글쓰기 교육의 효율적인 방안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5이는 대학 글쓰기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는 데 기역할 것으로 본다.

[『]국어교육』제135호, 2011; 한래희, 「영화 텍스트를 활용한 비평문 쓰기 교육 연구」, 대학작문학회, 『대학작문』6, 2013; 한영현, 「영상 매체를 활용한 글쓰기의 전략과 전망 - 영화 비평문 쓰기를 중심으로-」, 한국작문학회, 『작문연구』제19집, 2013; 황성근, 「텍스트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 연구 - 영화 '워낭소리'를 중심으로-」, 한국교양교육학회, 『교양교육연구』제7권 제4호, 2013; 황영미 엮음, 『영화로 읽기 영화로 쓰기』, 푸른사상, 2015; 황영미, 『영화와 글쓰기』, 예림기획, 2009; 황영미, 「영화를 활용한이과생 대학 글쓰기 교육 방법 연구」, 한국교양교육학회, 『교양교육연구』제7권 제4호, 2013.

^{4) &#}x27;장르(genre)'는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사실상 개념정의를 하기가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시. 소설. 수필. 희곡 등 일반적인 문학범주와 글의 종류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였다. 나은미는 장르개념 및 특징을 고찰하면서 장르는 '관습화된 사회적 실천행위'이며 장르지식은 특정 목적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정해 진 그 무엇으로 구성되는데, 그 무엇은 절차, 구조, 어휘, 문제 등 다양한 층위에서 가능하다고 정리하였다. 또한 그간의 장르중심이론은 특정한 맥락을 고려한 쓰기를 전제하고 맥락의 구현에 적절한 텍스트의 구성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 한 이론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의 실천력을 갖는 교육적 측면의 연구가 필요 함을 언급한 바 있다. (「장르의 전형성과 대학 글쓰기 교육의 한 방향」, 한국작문학회, 『작문연구』제14집, 2012, pp.110-114.) 장르에 관한 주요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 혜영, 「글쓰기 과정에 나타난 장르의 선택조건과 변용 가능성」, 한국어교육학회, 『국 어교육』제108호, 2002; 나은미, 「장르 기반 텍스트, 문법 통합 모형에 대한 연구 -취 업 목적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우리어문학회, 『우리어문연구』 제41집, 2011; 선주 원, 「확장된 장르 개념을 활용한 비평문 쓰기와 서사교육」,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 문학의 연구』 42권, 2010; 이윤빈, "대학 신입생 대상 '학술적 글쓰기'의 장르적 의미와 성격」, 한국작문학회, 『작문연구』 14집, 2012.

⁵⁾ 본고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영화와 글쓰기>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한다.

Ⅱ. 〈영화와 글쓰기〉 교과목 내용 및 운영방식

본 교과목은 2017년 1학기 교양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었으며, 매주 2시간 (2학점)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다. 수강대상은 학과, 학년 제한이 없으며, 수강정원은 80명이다.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영화감상 후 질문지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고 이를 토대로 토의·토론 활동을 한 다음 글쓰기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영화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눈을 기르는 한편, 자신의 생각을 장르별 글쓰기로 표현해 봄으로써 사고능력과 자기표현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인 교수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주제를 가진 영화들을 깊이 있게 감상한다. 6) 둘째, 영화에서 제기된 삶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재해석해 봄으로써 종합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신장시킨다. 셋째, 질문을 토대로 토의·토론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자기표현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킨다. 넷째, 편지, 일기, 시, 묘사, 비평문, 수필 등 여러 장르의 글쓰기 방법들을 익힌다. 다섯째, 영화감상, 토론을 통해 사유한 내용들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다.

교과목 구성 시 현재 우리 삶에서 중요한 문제들, '미래사회, 소수자 문제, 전쟁, 예술, 노동, 사랑' 등을 수업주제로 삼았으며, 장르별 글쓰기를 염두에 두고 총 6편의 영화를 선정하였다. 수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⁶⁾ 일부 다큐멘터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화는 수업시간 내에 전체를 감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본 수업에서는 영화를 편집해 가거나, 일부 내용을 건너뛰며 보았다. 또한 마지막 7, 8교시에 배정하여 다른 수업시간에 지장을 받지 않고 여유 있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수업내용

영화 (주제)	논제 거리	쓰기 주제	글의 종류
"그녀" (미래사회)	- 미래기술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인간의 정체성, 인간과 사이 보그의 관계 - 현대인의 소통방식과 사랑의 의미	- 테오도르가 사만다에게 - 사만다가 테오도르에게 - 캐서린이 테오도르에게 답장 - 혹은 자신이 쓰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
"다섯 개의 시선"/ "여섯 개의 시선" (소수자 문제)	- 우리사회 차별과 편견의 문제 진단 -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고정관념이 빚어내는 일상 속의 폭력구조 분석 -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소수자가 만 들어지는 원인 분석하기 -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 및 사회의 노력	- 영화의 주인공 중 한 사람이 되어 일기 쓰기 - 자신이 소수자가 돼 본 경험을 바탕 으로 일기 쓰기	일기
"일포스티노 " (예술)	- 주인공의 시작(詩作) 행위와 그 일 련의 과정들을 통해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 '글을 쓴다 는 것'의 의미 찾기 -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 '자기 응시' 의 문제	 영화에서처럼 자신의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 번호를 매겨 보기 자신의 삶을 반영하여 좋아하는 시 패러디하기 시 창작 	시
"워낭소리" (노동)	- 인간 삶에서 차지하는 노동, 직업의 의미에 대해 말해보기 - 주인공의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 하기 - 주인공의 삶에서 자본의 교환가치 로 환원되지 않는 요소들 찾기 - 영화에서 삶의 가치가 대조되어 나 타나는 장면 찾아보기 - 현대인의 생명의식에 대한 논의 등	 명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선택하여 묘사해 보기 할아버지, 혹은 소의 입장에서 서로를 묘사해 보기 자신이 아끼는 동물, 혹은 사물의 입장이 되어 자신을 묘사해 보기 최근에 알게 된 사람에 대해 묘사해보기, 혹은 그 사람의 입장으로 자신을 묘사해보기 	묘사
"피아니스트 " (전쟁)	- 전쟁이 인간 삶에 끼치는 문제 - 전쟁이란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예술의 의미 - 인간 삶의 소중한 가치	- 전쟁이 인간의 삶에 끼치는 문제 - 반전운동에 대한 찬반 논의 - 최근 국제분쟁에 대한 비평 - '악의 평범함'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사회 지식인의 역할	비평문
"연인" (사랑)	 주요대사를 중심으로 인물들의 심리분석해 보기 주인공의 자기와의 화해, 갈등조정 방법 찾기 주인공에게 글쓰기의 의미, 자신의 삶을 담아내는 방식 말해보기 	- 인생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사람 - 나를 변화시킨 사람, 사건 - 내가 생각하는 참사랑, 사랑의 의미 - 우리 삶에서 글쓰기가 가지는 의미	수필

수업은 주제별로 2주에 걸쳐 영화감상→질문지 작성→토의・토론→글

쓰기→글 공유→논평 순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영화감상에서 토의・토론까지는 글쓰기 전 활동으로 풍부한 내용생성을 토대로 주제설정 및 제재수집, 구상을 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실제적인 글쓰기 과정과 글쓰기 후 활동에 해당한다.

1차시에는 영화감상 후 과제로 질문지를 배부(강의지원시스템 탑재)하여 다음 시간까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오도록 한다. 그리고 2차시에는 질문지를 바탕으로 토의·토론을 한 후 글쓰기를 한다. 공유는 일차적으로 글쓰기를 일찍 끝마친 학생들끼리 서로 나누어 보면서 감상평을 한 마디씩적는 것으로 시작하고 이후, 모든 학생들이 글쓰기를 마친 다음 몇몇 학생들에게 자신의 글을 발표해 보도록 한다. 발표에 대해 교수자는 짧은 논평을 한다. 최종적으로 다음 시간에 잘된 글을 소개하고, 전체 글에 대해 총평을 하는 것으로 전 과정을 마무리한다.

글쓰기는 편지, 일기, 시, 묘사, 비평문, 수필 총 6개를 시행하였다. 비평 문은 대학 글쓰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수필 역시 다른 장르에 비해 자주 활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편지나 일기는 사적인 글쓰 기로 분류되어 있어 대학교육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나 묘사 같은 경우에도 전공과 관련되지 않으면 직접 쓸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생들의 이성과 감성을 골고루 배양하기 위해 서는 균형감 있는 글쓰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장르의 특징에 따라 글을 써 보도록 함으로써 자기표현의 다양 한 방식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본고에서는 수업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편지, 일기, 시, 묘사하기를 중심으로 글쓰기의 실제를 살펴본다.7)

⁷⁾ 영화 "피아니스트"에서는 전쟁이 인간 삶에 끼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비평문 쓰기를 "연인"을 통해서는 자신을 변화시킨 사건이나 사람을 중심으로 수필 쓰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두 글쓰기는 분량 등을 고려

Ⅲ. 질문을 바탕으로 한 토의·토론 활동

영화는 "문제 상황을 인식하는 비판적 능력과 타인과의 갈등을 종합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문화감식력"8)을 배양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영화를 감상하는 것에서 나아가 영화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등장인물들의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다각적으로 해석해 보는 과정에서 길러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영화이해를 위한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해결해 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학습 부담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자칫 영화의 맥락을 지나치게 비약해서 이해하거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을 고착화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영화를 이해하고 무엇을 중점으로 고민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가이드라인은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학생들의 사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영화를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글을 수업에 활용할 수도 있으나 그럴 경우 글쓴이의 생각을 모방하는 데 그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질문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택하였다. 질문은 그 자체로서 영화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스스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데도 효율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차시 영화감상 후 학생들은 교수자가 미리 제공한 질문지에 생각을 정리해 온다. 질문은 기본적인 영화내용에 대한 이해부터 사회문화적 의미를

하여 수업시간에 쓰기 않고 과제로 제시하였다.

⁸⁾ 황영미(2009), 앞의 책, p.17.

담는 것까지 다양하게 제시하였으며 영화적 요소를 분석, 비평하는 것보다 영화에서 제시된 삶의 문제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교수자의 정해진 질문에 답하도 록 요구하는 것은 자칫 학생들의 자유로운 감상법을 제한, 통제할 위험이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모든 질문에 답하기를 강 요하지는 않았으며 질문 가운데 5개 내외를 선택하여 답하고, 스스로 질문 하고 답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각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였다.

〈표 2〉 질문 예

영화 "그녀"

- 1. 주인공 테오도르의 일상, 직업, 표정, 태도 등을 바탕으로 그가 어떠한 성격의 소유자인지 말해보자.
- 2. 테오도르가 감정교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현대인의 관계 맺기 방식을 말해보자.
- 3.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창문, 메트로폴리스를 배경으로 한 테오도르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의 어떤 내면을 읽을 수 있나?
- 4 테오도르는 사만다를 통해 현실에서의 소외와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다. 아직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사만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은 없는지 말해보자.
- 5. 사만다는 수백만 프로그래머의 인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이나 감정이 인간과 유사하며, 능력 면에서는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며 인간을 보조하는 기계가 아니다. 포스트휴먼시대 인간의 정체성은 어떤 변모를 겪게 될 것인가? 인간과 인공지능은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 6. 테오도르가 원한 사랑방식은 무엇이었나? 그가 사만다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전통적인 여성상과 어떻게 다른가?
- 7. 테오도르가 여성이라면 인공지능에게 어떠한 사랑을 기대할 것 같은가? 사만다와 같은 인공지능은 젠더 특성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미래 인간의 사랑방식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 8. 사만다의 사랑은 어떻게 진화해 갔나? 이들이 이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9. 테오도르는 다른 사람의 삶과 감정을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이다. 영화 첫 장면의 대필편지와 마지막 장면에서 이혼한 아내에게 쓰는 편지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자기 언어'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 10.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기

영화 "다섯 개의 시선"/ "여섯 개의 시선"

- 1. '그녀의 무게' 편
 - 1) 영화 제목인 "그녀의 무게"는 몸무게 말고 다른 의미는 없을까?
 - 2) 주인공 선경이와 비슷한 체험을 했거나 고민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왜 외모에 집착하는 것일까?
 - 3) 일상에서 외모와 관련한 발언들은 얼마나 할까? 자신의 일상에 비추어 생각해 보자.
- 2. '대륙횡단' 편
 - 1) 인상적인 장면들을 정리해 보자.
 - 2) 장애를 가진 주인공을 대하는 가족, 이웃의 태도, '도움' 방식에 대해 말해보자.
 - 3) 지하철 장애인용 리프트를 담은 장면에 감독은 왜 '음악감상'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우리 주변에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시설은 어떤 게 있는지, 그 상태는 어떤지 살펴보자.
- 3.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편
 - 1) 감독이 찬드라의 시선으로 식당아줌마, 경찰, 정신병원 의사 등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까?
 - 2) 찬드라가 만난 한국사람들은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다. 평범한 속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편견, 차별의 문제에 대해 말해보자.
 - 3) 우리사회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다문화 국가 사람들의 인권 실태에 대해 조사해 보자.
- 4. '고마운 사람' 편
 - 1) 영화의 주인공은 고문을 가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사실 비정규직으로서 사회적 고문에 시달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무엇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영화의 장면을 들며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 2) 주인공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로 힘들어 한다. 우리시대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 보자.
 - 3) 아르바이트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사회 노동현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 5. '소수자'임을 결정하는 기준은 수의 많고 적음보다 권력에 의해 어떻게 그들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의 작용 속에서 차이가 차별이 되거나 차별을 위해 차이를 만들어낸 경우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 6. '소수자'가 돼 본 경험이 있는가? 그러한 경험 속에서 타인과 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면 얘기해 보자.
- 7. '소수자의 다수자화'(동화론), '소수자와 다수자가 함께 만드는 제3의 문화'(융합론), '따로 또 같이' (문화적 다원주의론) 등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창조적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 보자.
- 8.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9) 라고 명시하고 있다. 왜 차별을 금지하는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란 무엇인지 말해보자.
- 9.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소통문제, 시선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어디인지 말해보자.
- 10.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기

영화 "그녀"는 주인공 테오로르와 인공지능 사만다와의 사랑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이 가져다 줄 인간 삶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영화는 이전의 영화에서처럼 인간과 인조인간 간에 일어나는 선악의 대립보다는 둘 사이

⁹⁾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의 경계지점을 넘나들며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 가능성을 보여준다. 영화에서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성과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면 인간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지을지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미래의 일은 아니다. 주인공이 겪는 고독, 소통의 문제, 그리고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대상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는 모습 등은 현대인의 자화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문에서 미래과학기술이 가져다줄 이러한 변화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편지 쓰기'를 목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주인공 마음의 문제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현재 자신의 인간관계 맺기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많은 학생들이 영화 속 이야기의 실현가능성과 함께 등장인물들의 사랑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테오도르가 인공지능을 사랑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환경, 체험, 기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상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미 나를 사랑하도록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과연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

사만다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모든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신과 같은 사랑을 한다. 따라서 주인공은 그녀와 평등한 위치에 있을 수 없고 헤어질 수밖에 없다.

사만다를 만든 프로그램 개발자 내지 판매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여 수익을 내려고 할 것이다. 반면 테오도르과 같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할 것이다. 따라서 테오도르는 자본시장의 상품인 사만다를 통해서는 그가 원하는 사랑을 얻을 수 없다.

사람은 모두 다른 능력, 성격, 사고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좋아하는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고 차이를 이해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러한 사랑을 지속해가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영화에서 테오도르는 캐서린을 존중하기보다는 억지로 자신의 틀에 맞추려 했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학생 과제 일부-

사만다는 급속히 진화하여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초월하는 영역에 다다르는데 이는 과학이 인간뿐 아니라 신의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영화에서처럼 인공지능과의 사랑이 가능할지도 모르나 전통적인 사랑방식에서 인간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인할수 있다 라는 의견을 많이 남겼다. 특히 테오도르가 원하는 '맞춤형 연인, 사랑'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인간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자기희생이 가지는 의미 등을 서술하였다.

"다섯 개의 시선"과 "여섯 개의 시선"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다룬 옴니버스 영화이다. 수업에서는 외모지상주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중심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질문에서는 차별과 편견의 시선이 발생하는 구조적인모순과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인간의 삶을 규격화, 표준화하는 데서 일어나는 폭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피해자나 가해자 혹은 방관자의 입장에서 차별과 편견의문제를 겪어본 적이 있는지, 자신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였다.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서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한 것은 외모 때문에 겪

었던 차별의 문제,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느꼈던 비정규직 노동 자의 현실이었다.

대학에 들어온 후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왼쪽 눈은 예쁜데... 살을 빼면 예쁘겠다." 등. 그래서 점점 나의 만족보다 다른 사람들의 지적에 신경을 쓰게 됐다. 그 결과, 수술한 눈에 염증이 생겨 고생했고, 다이어트 후유 증으로 심한 탈모를 겪기도 했다.

제대 후 **중공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다. 남들이 퇴근한 시간에 남아서 잔업을 하는 날이 많았고 야간수당은 쳐주지만 일의 강도나 노동시간에 비해 시급은 낮았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가 팔 걷고 나서줘야 한다.

택배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그때 베트남, 필리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제일 힘든 곳에서 일하고 밥도 제일 늦게 먹었다. 아직 우리 사회 이주자들에 대한 인식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들에 대한 차별의 시선을 개선해야 할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영화를 보면 누구도 찬드라를 위협하거나 괴롭힐 의도는 없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는 인물들이었지만 찬드라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의도치 않은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익숙한 일상 속에서 나의 무관심과 무지가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은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처한 현실이 가해자의 입장에서든 혹은 피해자로서든 자신의 삶과 무관하지 않음을 언급하면서 이들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에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무관심이 만들어내는 폭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찬드라는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로, 공장을 나왔다 길을 잃게 된다.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그녀는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결국 정신 나간 한국인으로 몰려 6년 4개월 동안이나 정신 병원과 부녀자 보호소 등지에서 지내게 된다. 서툰 말로 자신이네팔사람임을 말해도 이미 정신병자로 낙인찍힌 그녀의 말에 아무도 귀기울이지 않으며, 경찰서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는 그녀를 떠넘기기에 바쁘다. 영화에 등장하는 한국인들은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이웃이나 관료들이다. 학생들은 본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외국인 노동자 문제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편견이 어떠한 차별과 억압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렇게 질문에서 고민한 내용들은 2차시, 토의·토론 수업에서 활용된다. 그러나 질문은 토론 준비단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론에서 요구되는 것은 논제 분석과 주장 및 반박을 위한 논거마련으로, 이는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겠다. 그러나 "경쟁만을 위한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이해, 협력적 · 민주적 소통 과정이라는 토론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는 토론 모델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10)라는 지적이 있듯이 토론 시. 양측의 입장을 충

¹⁰⁾ 김정녀·유혜원,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독서토론 교육방안 연구 - 비교과 프로그램 <창의적 고전 읽기 세미나> 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배달말학회, 『배달말』 55, 2014, pp.423-450.

분히 검토하여 그 속에서 추출되는 성숙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편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질문지 활동은 공감과 소통, 협력의 토론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볼수 있다.

토의・토론은 소그룹으로 진행된다. 질문을 통해 생각을 활성화해 왔기 때문에 수업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본 활동은 서로의 생각을 나눔으로써 표현능력을 향상하고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재검토하는 한편, 이것이 개인 삶의 문제로 고착화되지 않고 공동체의 삶 속에서 재해석됨으로써 서로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식으로 발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이처럼 질문을 통한 토의・토론 활동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질문에 대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속에서 영화 해석력 및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타인의 삶에 대한 공감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또한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마련해 오기 때문에 다음 활동인 토의・토론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킬수가 있다. 이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수업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글쓰기 주제설정 및 제재를 수집하는 효과를 가져다주므로 다음수업 단계인 글쓰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이 있다.

Ⅳ. 장르별 글쓰기의 실제

글쓰기는 학생들이 영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담아내는 과정이다. 쓰기 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주요 제재 로 삼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화 속 인물의 입장에서 쓰면서 삶의 문제를 여러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경험의 언어화는 경험으로부터 거리두기를 가능케 한다.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경험 속에 함몰되지 않고 거리를 두고 관찰하고 사유할 수 있다."11) 이러한 훈련은 자신의 삶을 사회적 장 안에서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얻는 데 기여한다 하겠다.

본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작품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나 비평, 혹은 단순 감상이 아니라 질문과 토의·토론 과정 속에서 확장된 생각들을 자유롭게 써봄으로써 자기 언어를 발견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글의 완성도나 형식미에서 부족하더라도 글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고, 자기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갈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또한 필수 글쓰기 교과목에서 기본적인 절차적 글쓰기 방법을 다루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장르이론 수업도 지양하였다.

1) 편지 쓰기

편지는 "'쓰는' 행위를 통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고 감정이입을 할수 있으며, 더불어 다시금 스스로 '읽는' 행위를 통해서는 객관적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감정에 대한 재발견과 메타비판이 가능하다."12》특히 영화 "그녀"에서 볼 수 있듯이 편지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자세를 형성하고, 인간관계에서 빚어진 갈등 상황을 조정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주인공 테오도르가 사만다와의 이별 이후, 자신의 사랑방식을

¹¹⁾ 나은미(2016), 앞의 논문, p.64.

¹²⁾ 박현이, 앞의 논문, p.86.

성찰하면서 이혼한 부인 캐서린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는 상대를 자신의 틀에만 맞추려 했던 이기적인 사랑에 대해 사과하고, 함께 한 시간들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테오도르가 겪는 이러한 시 행착오들은 사랑과 이별 과정 속에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감정적 요소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수업에서는 대필작가였던 주인공이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편지 내용을 참고로 하여 쓰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우선, 작품 속 인물이 되어 테오도르의 편지를 받은 캐서런은 어떤 답장을 보냈을까, 또 테오도르가 사만다에게, 혹은 떠나간 사만다가 테오도르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마음을 담을 것인지 상상하여 써 보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대상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나는 이제껏 사랑받기만을 원했어.(…) 지난 시간들 너와 함께여서 즐거웠고 힘들기도 했고 하지만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어. 날 깨워줘서 고마워. 사만다. (테오도르가 사만다에게)

안녕? 테오도르 난 캐서린이야. 며칠 전 편지는 잘 받았어.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야 우리 관계에 대한 생각을 겨우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 행복한순간, 기쁜 순간, 슬픈 순간, 화났던 순간까지 많은 순간을 너와 같이 보내왔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던 것 같아. 좀 더 사랑해주고 나를존중해 줬으면 했던 마음뿐이었는데 말이지. 지금 돌이켜 보면 서로가 원하는모습에 맞추기만을 바랐던 것 같아. (…) 고마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날 사랑한다고 해 줘서. (캐서린이 테오드르에게)

테오도르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 그와 관련해 말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써요 저도 테오도르와 비슷하게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에요 (…) 상처를 딛고 일어나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겁 먹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면 좋겠어요 (자신이 테오도르에게)

엊그제 할매가 이제 왼쪽 눈 안 보인다고 하니까 요즘 가끔 실눈 뜨고 왼쪽 눈 감으면서 생활해. 내가 겪어보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지, 괴로울지 제대로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자신의 할머니에게)

-학생 글 일부-

학생들은 다양한 입장에서 편지쓰기를 수행하였다. 영화 등장인물과 관 련하여서는 테오도르 입장에서 떠나간 사만다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자신 의 이기적인 사랑을 깨닫게 해 준 데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내용이 많았다. 사만다와 캐서린의 입장에서 쓴 편지에서는 테오도르에 대한 미안함. 그리 고 상처받은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외, 테오도 르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에게 공감의 편지를 보낸 학생들 도 있었으며, 감독에게 영화를 통해 생각한 바를 적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서는 친구, 가족, 연인에게 띄우는 편지들이 있었다. 이처럼 그 수신인은 다양하였으나, 인물들이 겪는 마음의 문제에 감정이 입하여 자신의 삶을 반성, 성찰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편지 쓰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을 둘러싼 삶의 문제들, 특히 소통을 원하 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가관계에서 빚어지는 피곤함 때문에 이로부터 벗어 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양가적인 감정과 이 때문에 빚어지는 오해와 상처 를 스스로 치유, 보듬고자 하는 노력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입장 에 있는 인물들에 감정이입해 봄으로써 서로 가 마음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체득해 가는 데 도움을 준다 하겠다.

2) 일기 쓰기

소수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 "다섯 개의 시선", "여섯 개의 시선"과 관련하여서는 일기 쓰기를 실행하였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기 이해와 화해의 능력으로서, 이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대면하는 연습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기 쓰기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일기는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이를 적절하게 표출함으로써 감정조절 능력과 자아 존중감을 기르는 데 효율적인 글쓰기 장르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교육의 현장에서뿐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늘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패에 민감하며 이에 따른 스트레스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해소할 통로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기 쓰기는 이러한 대인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이나학업 및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함으로써 감정을 해소하고 궁정적인 자기암시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대학교육에서도 일기 글쓰기를 의미있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활동에서는 영화 속 주인공의 입장에서 혹은 자신이 소수자가 돼 본경험을 바탕으로 '일기' 쓰기를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떠한 감정의 소유자인지 살펴보고, 영화에서 제시된 문제를 사회적 의미로 확장시켜보도록 하였다. 본 활동은 영화의 등장인물을 타자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삶이 자신과 무관하지 않음을 인식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하겠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고통을 가져온 원인에 연루되어 있지는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보여주는 연민은 우리의 무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고함도 증명해 주는 셈이다. 따라서 연민은 어느 정도 뻔뻔한 반응일지도 모른다. 특권을 누리는 우리

와 고통을 받는 그들이 똑같은 지도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특권이 그들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숙고해 보는 것, 그래서 전쟁과 악랄한 정치에 둘러싸인 채 타인에게 연민만을 베풀기를 그만둔다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과제'¹³⁾이기 때문이다.

정신병원에 갇힌 지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하는 거라곤 침대 위에 누워 하얀 천장과 형광등을 보는 게 전부이다. 내 이름은 찬드라인데 사람들이 내 이름을 선미야로 바꾸려 하다. (…) 매번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을 걸고 낯선 곳으로 데려간다.(…) 언제쯤 다시 네팔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볼 수 있을까?

군대에서 폭력이 난무했다. 폭력의 정당성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나. (…)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내 편의를 위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하지는 못하겠다. 내가 선택한 소수자로서의 삶이었지만 가슴 한 켠 여전히 쓸쓸함이 남아 있다.

나는 얼마 전에 다리를 심하게 다쳐 한 달 동안 왼쪽다리 전체에 깁스를 하고 양쪽 목발을 다 짚고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친구들은 '장애인'이라며 놀렸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보도블럭은 되게 울퉁불퉁 튀어나온 곳이 많아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 한 적도 있었다.(…)나는 고작 한 달을 버텨야 하지만 태생부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내 경험이 평생을 견뎌내야 할 일상이라는 점이 내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었다.

-학생 글 일부-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에서는 그녀가 느꼈을 답답함을 일기로

¹³⁾ 수전 손택, 『타인의 고통』, 이재원 옮김, 이후, 2008, p.154.

써보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가진 문제에 대해 성찰하는 글들이 있었다.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고마운 사람'과 관련 하여서는 그의 일터인 지하 고문실이 그의 암울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음을 짚으면서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었던 부당함을 회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외모 차별,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은 일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차별과 억압의 예로서 학생들은 이에 대해 영화 속 주인공에 감정 이입하여 쓰거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일기쓰기를 수행하였다. 이외, 군대 선임 시절, 폭력의 정당성을 문제 삼다 동료들뿐 아니라 후임들에게까지 외면당했던 당시의 감정을 서술하면서 수적인 다수에 의해 잘못된 현실이 정당화됨으로써 일어나는 폭력성을 문제 삼기도 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은 일기 쓰기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한편, 우리사회 소수자들이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곧 자신의 삶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서로의 삶에 대한 공감의 정서를 피력하였다. 이는 삶에서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과 소외의 경험, 이로 인한 상처를 보듬는 자기 치유적 효과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 체험은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하겠다.

〈표 3〉학생글 예〉

편지 전문	일기 전문
To DENGE EZ (let 1/5/6/m)	
through the chiniquescal there it is all the state of the	म अन्न क्षेत्र के एक स्कृत स्राप्त साम
面理 出现 B TROKE 农村政 ONE ONE ONE ONE ONE ONE	정비를 통합한 것은데 내 산호의 일상적인 성호 너무나 됐다는
(मेल केल प्रेय 901 Bots फेसकेराट अरुपट कुछ MBBHS केर	ों गोर पा दिन पाना अर्थि है। पर प्रमाधिक
NOT STRUCTURE GREET ONL WHITE THE LITTLE GIVE SIZE STRUCTURE	W 知识 提 好 好WA Sun ortho: 丁醇 哇 好H放
THE KERCULE GOLD BLY IN CHOCKE IN ORDER MADE STATE OF	好好 化 智雅 學歌 100 器 柳 嚴 城北
्राध्य १५५४५६ क्रिकारीम अनुस्थार अस्तिहरू क्षेत्राम् साहरू स्टापिक्ट	好語作品類 品類 五色器 加爾 縣 在

지수 1 आई। 전환 제 이용대 가족 환경한 전에 전혀 보다.

1년 대 전 환호 산 설계 대전 여행 한 보고를 했다.

보고 대명했다 나는 내 함께 내가 부하기가 한 한 제 전하 하다.

1월 느낌개가 된 있었다. 일은 건강 느꼈다. 알다.

1월 나낌개가 된 있었다. 일은 건강 느꼈다. 알다. 가다. 대한 만든 같아. 나도 대한 다른 전혀 함께 전 구 경단 전체기.

1월 기자 120 등한다. 때는 다른 전혀 함께 전 구 경단 전체기.

1월 기자 120 등한다. 때는 사이 기대 대한 원 발 기대 분 수 있는 "한다." 개편로 있어다.

1년 나가 같아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변경에는 보다. 나도 함께 활동하고 전하는 산다.

3) 시(詩) 창작

영화 "일포스티노"와 관련하여서는 시(詩) 쓰기를 진행하였다. 영화는 가난한 어촌 마을의 우편배달부 청년 마리오가 시인 네루다를 만나면서 상상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은유'의 힘을 알게 되는 이야기를 잔잔하게 담아내고 있다. 네루다는 "시란 설명하면 진부해지고 말아. 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감정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뿐이야."라고 말한다. 마리오는 네루다와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글쓰기가 곧 삶에 대한 태도임을 깨우쳐 가고,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주변의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눈'을 갖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워요 이토록 아름다운지 몰랐어요."라고 노래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마리오의 시작 활동은 점차 공적 목소리로 확대되어 가는데 이는 네루다의 떠남으로 만들어진 자기 침잠의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섬을 벗어날 궁리를 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마리오가 광장의 군중들 앞에서 생동감 있는 연설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그가 '자기 언어'를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영화는 '시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언어의 진실성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삶에 대한 태도를 성찰하게 한다.

영화의 예처럼 능동적인 시 창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서적인 감흥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업에서는 마리오의 변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자 유롭게 시를 창작하거나 수업 전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패러디해 보도록 하였다. 또한 마리오가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 번호 를 매겨 보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아름다움을 찾아 적어 보게 하였다.

〈표 4〉 '일상 속의 아름다움'

영화 "일포스티노" 중	학생 글 일부 모음
1번. 칼라 디 소토의 파도 작은 파도	어항 속 베타들(물고기)의 반짝이는 지느러미
2번. 큰 파도	올라오는 두릅들
3번. 절벽의 바람소리	창가로 들어오는 노을빛
4번. 나뭇가지에 부는 바람소리	자연소음만 들리는 새벽공기
5번: 아버지의 서글픈 그물	밤하늘에 파묻힌 달
6번: 신부님이 치시는 교회의 종소리	집 앞 하천의 물소리
아름다워요. 이토록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창문에 부딪치는 빗방울 소리
7번: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광목을 자를 때 들리는 두툼한 소리
8번. 파블리토의 심장소리	헤드셋 사이로 들리는 오른쪽 발소리
	빈 강의실에 정돈된 책걸상
	카페의 커피 향기
	일기에 묻어나는 연필 소리
	알바비 받은 날 집에 가며 맞는 바람
	아버지의 주름 잡힌 손등

일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자연이었으며 이외에 학교생활,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의 삶, 사람들과의 만남과 소소 한 사건에서 느끼는 감정 등을 소재로 삼고 있었다.

자연과의 교감, 일상의 가치를 새롭게 확인하는 이러한 과정들은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

다 하겠다. 또한 자신의 정서를 시적 언어로 표현해 봄으로써 '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의적으로 읽어냄으로써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4) 묘사하기

"워낭소리"는 자본의 교환가치로 환원할 수 없는 인간 삶의 가치, 생명 의식 등을 그려내고 있는 영화이다. 현대인들은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질서 속에서 끊임없이 변신을 도모하고 자신을 상품화해야 한다. 이 가운데 자 주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인간관계로 시달리기도 하는 것이다. 영화는 이러 한 자본주의 시간을 비껴나서 성실한 시간이 만들어내는 삶의 깊이를 보여 줌으로써 노동의 신성성과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

영화는 화려하거나 웅변적인 대사를 쓰지 않는다. 주요한 내용들은 오히려 할아버지의 침묵과 소와 함께하는 일상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영화는 묘사문 쓰기를 실행하는 데 훌륭한 텍스트로 기능한다. 묘사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을 그림 그리듯이 서술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그러나 "단순히 보이는 것들에 대한 나열이 아니라 보이는 것 이면에 감추어진 의식이나 사고까지도 드러내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의 글"14)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에서는 영화의 특성을 살려 인상적인 장면을 선택하여 묘사해 보거나 할아버지나 소의 입장에서 서로를 묘사해 보기, 자신이 아끼는 동물, 혹은 사물의 입장이 되어 자신을 묘사해 보면서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가진 풍부한 의미들을 추출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¹⁴⁾ 함종호 「영화 형식을 활용한 묘사문 쓰기」, 황영미(2015), 앞의 책, p.48.

깡마른 다리, 절뚝거리는 걸음. 함께한 세월만큼이나 많아진 주름. 여물을 들고 걸어오는 저 사람은 나의 주인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는 날 없이 나와 내 주인은 일을 한다. 나는 주인의 다리이자 동반자이자 삶 그 자체이다.

흰머리 할아버지가 오신다. 여물을 든 반대 손에는 낮인지 어제 팬 장작인지 이제 잘 보이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오늘도 다리가 아프시다. 낡은 수레를 끈 지도 40년째. 나와 함께 수레도 이곳저곳 멍들어 있다. 새삼 할아버지의 얼굴을 본다. 참 많이도 늙었다. 그리고 나도 늙었다. 40년이 넘었던가? 맨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저 사람은 지금보다 얼굴에 주름이 없었고, 몸집도 있었고, 아이들도 많았다. 그런데 이제는 아내와 단 둘이서 산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내가 좀 더 살아야 저 할아버지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아침 일찍 영감이 나에게 소죽을 주고 논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정말 고지식하고 고집 센 영감이다. 나는 요즘 들어, 아니 오래 전부터 앞으로 가는 것이 힘들고 계속 아픈데 영감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나무를 하러 왔다. 되돌아보면 정말 일만 죽어라 하고 가는 인생이라 영감을 원망 많이 했는데 영감도 나와 다르지 않은 거 같아 한편으로는 불쌍하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 몸이 안 좋아지는 거 같은데 영감이 갑자기 코뚜레를 풀어준다. 40년 넘게 해온 족쇄에서 해방되어 기쁘지만 점차 눈이 감긴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가 보다.

아, 한심하다. 나의 주인인 너는 버릴 줄 모르는 습성을 버릴 줄 몰라 내 안에 쓰지도 않는 파일과 프로그램들을 잔뜩 넣어놨구나. 너는 영어단어로 채운 문서를 몇 개나 모이두고선 어학공부라는 계획을 내세웠지. 그리곤 그것 을 건들지 않은 지 어언 두 달이 다 돼가. 네가 나를 여는 날이면 우적우적 과자부스러기를 나에게 흘리며 조잡한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며 혼자 울고 웃고 소리 지르곤 하지. 너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단다. 학생들은 깊은 주름, 거친 손, 불편한 다리, 묵묵히 살아온 삶을 대변하는 무표정한 얼굴 등 할아버지의 인상적인 모습을 포착하여 이를 토대로 그의 삶을 다양한 시작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늙은 소의 입장에서 할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애틋함을 드러내는 내용부터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애증을 담은 글까지, 소가 가졌을 만한 복합적인 감정들을 글쓰기 속에 잘 담아내고 있었다.

위의 마지막 글은 컴퓨터의 입장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묘사해 봄으로 써 일상을 반성하고 있는 글이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스마트폰, 필기구 등의 눈으로 자신의 표정, 행동, 심리 등을 묘사하였다. 이처럼 상상력을 발휘하여 대상으로만 머물던 것에 시각과 목소리를 부여함으로써 인간과 사물의 관계맺음의 방식들을 입체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인간내면에 대한 이해력뿐만 아니라 사물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한다 하겠다.

살펴보았듯이 학생들은 장르적 특성을 살려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었다. 영화감상에서 토의·토론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면서 제재를 마련했기 때문에 글쓰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없었다. 본글쓰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고자하는 욕구가 크다는 것이었다. 사실 대학생이 되기까지 치열한 경쟁구도하에서 상호소통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순화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자기 언어로 다듬어볼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인으로서의 성숙한 감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여 내적성장을 도모하고 인간 삶에 대한 감수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글쓰기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곧 이성에 기반을 둔 사고력, 판단력을 강화하는 일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영화를 활용한 장르별 글쓰기 수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이를 여러 장르의 글쓰기로 표현해보도록 함으로써 '자기 언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이었다. 사실상 형식과 내용 등 글의 완성도 측면에서 보자면 여전히 부족한부분들이 많다. 이는 학생들의 감성, 생각의 깊이를 키워줘야 할 필요성을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삶의 문제에 대해고민하고 이를 자기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성숙된 감성능력 없이 학술적 담화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성적 글쓰기를 요구하는 것은 외형적인 글쓰기 연습이 될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본 수업에서 실시한 장르별 글쓰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장르별 글쓰기는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여 독자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고민함으로써 글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또한 장르가 가진 수사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채롭게 글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익히는 것은 언어적 상상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겠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영화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안목을 키우고, 자신뿐 아니라 인간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인간 삶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글쓰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수업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글쓰기 필수 교과목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절차적 글쓰기 방법 익히기, 학술적 글쓰기를 보완, 심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 영화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화선정부터 교수설계, 교수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수정·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영화선정, 질문과제, 토의·토론, 글쓰기 등 수업 전 과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남겼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좋았던 점으로는 "단순한 영화감상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느낀 점을 글로 풀어쓰는 연습을 했던 게 인상 깊었다.", "과제를 통해 영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영화를 보는 시선을 키워주고 글 쓰는 재미를 알게 해준다.", "토론하는 시간이 좋았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선정된 영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학생들도 있으나 중간평가에서 "선정된 영화가 좀 무겁다."라고 하여 예정되어 있던 다큐멘터리 "환생을 찾아서(Unmistaken Child)"는 "워낭소리"로, "시"는 "일포스티노"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세상의 변화속도만큼 영화뿐 아니라 각종 미디어의 변화에 민감한 학생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차후 영화선정시에도 학생들의 선호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쓰기 장르인식 및 선호도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견 가운데 장르에 대해 특별한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는 없었다. 이는본 수업에서 장르별 이론 수업을 부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실제 SNS 등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의 경우, 장르가 혼재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장르인식이 크게 없는데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해본다. 따라서 차후, 학생들의 장르인식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장르별글쓰기, 나아가 장르를 혼합한 복합적인 글쓰기 교육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글쓰기 수업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으나 교수자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피드백 부분이라 할 수 있다. 80명 학생들의 글을 총 6번에 걸쳐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짧은 글이라 하더라도 세심하게 피드백하여 돌려주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글쓰기 첨삭프로그 램을 마련한 학교들이 많으나 주로 교양필수 교과목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글의 종류, 분량 등도 정해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장르별 평가항목 및 첨삭 지도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들이 글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들은 자칫 단편적인 글쓰기 기술 습득으로 끝날 수 있는 실용적, 규범적 글쓰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언어사용의 총체성을 경험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자기 삶의가치와 방향성을 창의적으로 탐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곽상순, 「학술적 글쓰기 교과 과정의 운영과 체계 연구」, 대학작문학회, 『대학작문』 10호, 2015, pp.11-30.
- 김영옥, 「수사학 전통과 영화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 영화 <시>의 경우-」, 한국수사학회, 『수사학』 제15집, 2011, pp.113-134.
- 김정녀·유혜원,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독서토론 교육방안 연구 비교과 프로그램 <창의적 고전 읽기 세미나> 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배달말학회, 『배달말』 55, 2014, pp.423-450.
- 김혜영, 「글쓰기 과정에 나타난 장르의 선택조건과 변용 가능성」, 한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 제108호, 2002, pp.127-148.
- 나은미, 「영화를 활용한 성찰 글쓰기 탐색 대학생을 대상으로, <더 헌트>를 활용하여 다., 한국작문학회, 『작문연구』, 제31집, 2016, p.64.
- 나은미, 『장르 기반 텍스트, 문법 통합 모형에 대한 연구 취업 목적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우리어문학회, 『우리어문연구』제41집, 2011, pp.167-195.
- 나은미, 「장르의 전형성과 대학 글쓰기 교육의 한 방향」, 한국작문학회, 『작문연구』, 제14집, 2012, pp.110-114.
- 박정하, 「학술적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성균관대 <학술적 글쓰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고와표현학회, 『사고와 표현』 5집 2호, 2012, pp.7-39.
- 박현이, 「감성 개발을 위한 대학 글쓰기 교육의 한 방향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편지 쓰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8권 3호, 2014, p.81, 86.
- 서승희, '학술적 글쓰기 주제 선정을 위한 단계별 지도 사례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 육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7권 12호, 2017, pp.101-117.
- 선주원, 「확장된 장르 개념을 활용한 비평문 쓰기와 서사교육」,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42권, 2010, pp.641-671.
- 수전 손택, 『타인의 고통』, 이재원 옮김, 이후, 2008, p.154.
- 원만희, 『학술적 글쓰기에 있어서 '분석적/비판적' 글쓰기의 중요성과 실습 매뉴얼 : 두 유형의 글쓰기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작문학회, 『작문연구』 25권, 2015, pp.227-258.
- 원진숙, '대학생들의 학술적 글쓰기 능력 신장을 위한 작문 교육 방법, 민족어문학회,

- 『어문논집』51, 2005, p.56.
- 이경희, 「영화 <그녀 Her>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모형」, 사고와 표현학회, 『사고와 표현회, 『사고와 표현』, 제9집 2호, 2016, pp.255-291.
- 이윤빈, 「대학 신입생 대상 '학술적 글쓰기'의 장르적 의미와 성격」, 한국작문학회, 『작문연구』 14집, 2012, pp.159-200.
- 이윤빈, 「대학생의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전략 교육 방안 -쓰기 과정별 전략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작문학회, 『작문연구』 제33집, 2017, pp.117-154.
- 이윤빈·정희모, 「과제 표상 교육이 대학생의 학술적 글쓰기 수행에 미치는 효과」, 한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 131, 2010, pp.463-497.
- 정희모, 「대학 글쓰기의 교육 목표와 글쓰기 교재」, 대학작문학회, 『대학작문』 창간호, 2010, pp.41-68.
- 정희모, 「핵심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교양교육 발전 방안 -대학 작문 교육 과 학술적 글쓰기의 특성-」, 한국작문학회, 『작문연구』 21집, 2014, pp.29-56.
- 한귀은, 「영화를 통한 타자성 지향의 글쓰기 교육」, 한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 제 135호, 2011, pp.305-328.
- 한래희, 「영화 텍스트를 활용한 비평문 쓰기 교육 연구」, 대학작문학회, 『대학작문』 6, 2013, pp.213-247.
- 한영현, 「영상 매체를 활용한 글쓰기의 전략과 전망 영화 비평문 쓰기를 중심으로-」, 한국작문학회, 『작문연구』 제19집, 2013, pp.237-273.
- 함종호, 「영화 형식을 활용한 묘사문 쓰기」, 황영미 엮음, 『영화로 읽기 영화로 쓰기』, 푸른사상. 2015. p.48.
- 황성근, 「텍스트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 연구 -영화 '워낭소리'를 중심으로-, 한국교양 교육학회. 『교양교육연구』제7권 제4호, 2013, pp.39-69.
- 황영미, 『영화와 글쓰기』, 예림기획, 2009, p.17.
- 황영미, 「영화를 활용한 이과생 대학 글쓰기 교육 방법 연구」, 한국교양교육학회, 『교 양교육연구』 제7권 제4호, 2013, pp.109-135.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Abstract

Writing education instruction by genre using film

Kim, Hyun-ju

Currently, formal writing courses focus on academic writing and practical writing for employment. However, in order to develop empathy and sense of empathy for others' lives, it is necessary to practice not only logical and critical writing, but also develop writing exercises that can refine emotions. Without mature emotional ability, it is difficult to expect intelligent writing as a member of the academic discourse community. In this thesis, I discuss the ways to link the writing of diverse genres such as letters, diaries, poems, and descriptions to discussion and discussion activities. The activities are based on questions following film appreciation through the case studies of <film and writing>.

The rich stories and reasons that the film itself reveals, and the composition and methods of expression that it contains, help students to gain insight into human life beyond their ability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ir work. The colorfulness of the film will contribute not only to envisioning the way of writing education but also to learn how to organize and express the writing with consideration for the rhetorical effects of the genre. It is hoped that by strengthening the linguistic imagination, it is possi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actical and normative writing, with the possibility of frag mentary writing while experiencing the totality of language use, ultimately students will be able to actively plan their lives with their own language.

Key Word: flim, question, discussion and debate, writing by genre, letter, diary, poem, description, emotion, empathy

330 韓民族語文學 第80輯

김현주

소속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전자우편: fussen677@cu.ac.kr

이 논문은 2018년 5월 8일 투고되어 2018년 6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6월 7일 게재 확정됨.